

청소년권장도서 '유감'

최근 어느 공공기관에서 3/4분기 청소년권장도서 30권의 목록을 발표하면서 안내용 블러쉬까지 만들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는 바람에 여러번에 걸쳐 그 목록을 들여다볼 기회가 있었다.

하느님 살피보니 선정기준과 선정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 책들이 있는가 하면, 심지어 청소년들에게 읽으라고 '권장' 할 만한 책이라 보기엔 아무래도 억지인 책도 눈에 띄어 목록을 훑는 기분이 그리 좋지 않았다.

한가지 예를 들자면, 대중앞에서 자신을 보다 돋보이게 연출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이미지메이킹'과 같은 책은 정치인이나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는 전문직종사자들이 '읽기'보다 '보고' 참고하

기에 좋은 책이지 청소년들이 학과공부 사이사이에 금쪼가리같은 시간을 빼내어 투자해 읽어야 할 만큼 중요한 책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또한 추천기관은 90년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나온 '신간' 가운데서 선정했다고 밝히고 있는데, 출간된 지가 2~3년도 더 지난 '기간' 서적이 끼여있는가 하면, 국민학생용 독서가이드북에서부터 전공자들을 위한 두툽한 부피의 역사서까지 들어있어 도대체 이 추천기관이 말하는 '청소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어디둘것해 하였다.

청소년층을 중학생에서 대학생까지로 정했다면 지식수용에 큰 낙차를 보이는 이들을 '우리'라고 한데 묶어 함께 읽을 신간 30종을 정한다는 것 자

제가 무리다 싶었고, 그 책의 내용들도 정말 해당 시기에 나온 신간 중에서 엄선된 "읽어야 할 좋은 책"인가에도 의문이 따랐다.

특히 '청소년=중고생' 정도로 좁혀보았을 때 그들을 위해 만든 책들이 이렇게 없나 하는 뒤흔음은 장년층의 책까지 목록에 넣는 책선정위층의 고충이 짐작 안가는 바도 아니었지만 없는 책을 굳이 대상층을 어거지로 넓혀가며 '신간'에서 뽑아야 할 까닭이 있을까 하는 아쉬움도 남았다. 또 이렇게 일단 기관의 이름으로 추천된 책은 권위를 부여받게 됨으로써 도서관이나 독자 개인의 책구입시 선택될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게 되고 더구나 대형서점에서는 특설매장까지 마련하고 있으니 부적합의 확대재생산이라는 우려가 든다. 다시 그 목록을 살펴건대 어떤 기준과 이유에서 이 책들은 청소년들에게 '권장' 할 만한 책이고, 과연 그것이 최선의 선정이었나 하는 물음이 자꾸 고개를 든다.

—정혜우 기자

출판저널

등록 제93호 / 1991년 10월 20일 발행

발행인 — 鄭鎮肅
 편집인 — 金炳翼
 인쇄인 — 李壹秀
 편집부장 — 康鐵柱
 기자 — 金芝媛 鄭素淵 崔兌源
 鄭蕙玉 朴南貞
 디자인 — 尹貞子 南明希
 사진 — 金弘鎭

업무차장 — 尹東鎭
 업무·광고 — 李義天 崔炳天
 金允淳 金枚姬

등록 1987년 6월 9일 - 다 435
 대체구좌 010041-31-2826477
 발행처 - (재) 한국출판금고
 인쇄처 - 평화당인쇄주식회사
 전산사식 - 대한컴퓨터

출판저널 - 110-190 서울 중로구 사당동
 105-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1431~3
 FAX 722-1174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출판저널」 편집서평위원

- | | | | |
|-----|-----|-----|---------|
| 權孝彬 | 琴季泰 | 金光秀 | 金文煥 |
| 金錫滿 | 金聖坤 | 金彥鍾 | 金榮漢 |
| 金仁會 | 金鍾元 | 金治洙 | 金泰俊 |
| 金秉賢 | 金泰亨 | 朴明淳 | 朴星來 |
| 朴世熙 | 潘星完 | 邊衡尹 | 徐潤昊 |
| 宋相福 | 申福龍 | 愼錫寬 | 安秉永 |
| 安輝燾 | 梁文吉 | 吳光洙 | 柳一相 |
| 尹志寬 | 李康淑 | 李環薰 | 李光周 |
| 李基相 | 李斗暎 | 李萬烈 | 李潤浩 |
| 李相日 | 李勝羽 | 李元藪 | 李重漢 |
| 李姬載 | 林煥燾 | 張必和 | 張會翼 |
| 鄭丙圭 | 鄭炳鍾 | 鄭雲瑛 | 鄭晉錫 |
| 鄭錫弘 | 曹南鉉 | 曹大鉉 | 曹鍾華 |
| 韓相慶 | 韓勝憲 | 許炳烈 | 洪廷善 |
| 黃鉉產 | | | (가나다 순) |

「출판저널」 정기구독안내

매월 5일·20일자로 발행되는 격주출판저널의 정기구독제도를 안내합니다.
 * 본사의 지로용지로 11,000원(반년분) 또는 20,000원(1년분)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의 해당호부터 우송해 드립니다. 정기구독 예약은 반년분 또는 1년분 단위로 신청을 받습니다.
 * 본사의 지로 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동철 수협 축협 포함)의 A지로 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의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 붙일하거나 또는 우체국 대체구좌 010041-31-2826477을 이용하십시오.

독자서평을 모집합니다

본지는 서평의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독자들이 참여하는 「독자서평」란을 두기로 했습니다. 신간중부터 감명깊게 읽은 책, 값자다고 생각되는 책을 서평의 형식으로 소개하는 글이 되겠습니다.
 원고분량은 책명과 저·저명명을 포함하여 2백자 원고지 7매 내외, 투고하시는 분의 주소·성명·직업 등을 첨가하여 본사 「독자서평담당자」 앞으로 우송해 주십시오. 투고된 원고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본지에 게재합니다. 수록된 서평에 대해서는 게재지와 소정의 원고료를 드리겠습니다.

공공: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

재미있는 책이야기

중국 땅에 사는 조선족의 유일한 자치주인 연변에 깨끗하고 순박한 조선민족의 성품이 그대로 남아 있어 우리의 향수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그로부터 촉발돼 나왔던 「중국 연변」(김숙련 외 공저, 김영사)에는 연변의 출판활동에 관한 설명이 담겨 있다. 그 일부를 발췌, 소개해 또다른 공간에서의 조선민족의 삶 일부를 느껴본다.

▲출판 해방 후 연변지구 조선족들에게는 통일된 조선어 교과서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었다. 이러한 요구가 1947년 3월 전국 최초의 민족교육 출판사인 '연변교육출판사'를 정식으로 창립했다. 창립된 그해 출판된 도서가 28종이었고, 발행부수가 23만4천권에 달했다. 그리고 4년 뒤인 1951년 8월 연변인민출판사가 설립되었다. 그해 9월에는 「동북조선인민보」와 연변교육출판사 발행부가 합쳐져 조선어로 된 각종 도서, 교과서 및 간행물 등을 전부 동북조선인민서점(지금의 연변신화서점)에서 발행하게 되었다.

동시에 연변교육출판사 인쇄공장과 「동북조선인민보」사의 인쇄공장, 연변인민출판사 인쇄공장 등 세 개의 공장이 합병하여 연변신화인쇄공장으로 재출발했다. 이때부터 편집, 인쇄, 발행 등 사업은 체계를 갖추어 연변의 출판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공화국 창건 이후 40

여년간 수많은 어려움과 동란 등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정부와 인민의 노력으로 오늘날 명실상부한 출판발행체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출판기구 현재 자치주 내의 출판사는 4개소, 잡지사는 7개소가 있다. 이러한 도서간행물 출판사업에 종사하는 편집인들은 350여명이다. 여기서 각 출판사와 잡지사를 알아보면, 우선 출판사는 동북조선민족교육출판사(전 연변교육출판사), 연변대학출판사, 연변화학출판사 등이고, 잡지사로는 중국 조선어문잡지사, 연변인민출판사, 대중과학잡지사, 지부생활잡지사, 친지월간사, 연변여성잡지사, 동북후비군잡지사, 중국조선족 교육잡지사가 있다.

▲도서발행업 자치주 전체의 발행망을 형성하고 있는 연변신화서점은 노후화된 운송방법을 개혁하고 포장기계화를 본격적으로 실현했다. 이미 전국에 2천4백여개소의 서점과 판매망을 형성하고 있으며 연변의 3개 출판사, 그리고 중앙민족출판사, 흑룡강 조선민족출판사 등 5개 출판사의 도서간행물 발행임무를 감당하고 매년 150만원에 상당하는 중화화물 발송업체로도 운영되고 있다. 1988년 한해동안 자치주 내에서 발행된 도서의 양은 1천3백 94만권에 달했고, 발행사업 분점이 335개소, 종사자가 677명에 이른다.

▲신문 연변의 신문은 비교적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1915년 연길 도윤공서에서 「연변실보」 「연변시보」가 발간되고 1년간 광 지속되지만 일본의 압력에 정간된다. 그러나 1919년부터 1921년까지 연변에서는 「일민보」 「신문보」 「애국보」 등 5·4운동을 중심한 계몽신문이 발행되기도 했다.

1947년에 연변에서 인쇄하여 발행한 신문은 14종이나 된다. 공화국 창건 이후 연변의 신문사업은 몇차례의 곡절과 변천을 겪었으나 그 발전속도는 결코 늦춰지지 않고 있다. 오늘날 자치주의 신문은 당위원회 기관지를 중심으로 전문신문과 기업신문들이 집단체화를 이루어 다양한 사회주의 신문사업구조를 이루고 있다. 현재 연변에서 발행되는 신문의 총수는 35종이나 되며, 매 기당 총발행수는 36만부에 달한다.

이들중 「연변일보」는 자치주에서 가장 먼저 창간된 신문이다. 40년 이래 「연변일보」는 주 당위원회 기관지로서 '조직, 고무, 추동, 비판'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였다. 현재 이 신문의 매 기 조선어판의 발행부수는 2만9천부, 한문판 발행부수는 2만2천부다.

1957년에 창간된 「연변소년보」를 전신으로 하여 「중국조선족소년보」는 매 기당 5만 2천부 「연변 라

디오 텔레비 신문」(조·한문판)은 15만부, 「종합참고」는 5천부의 발행량을 갖는다. 현재 자치주 내의 신문 제작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678명으로 이들은 편집, 취재, 인쇄, 발행, 통신연락 등을 담당하고 있다.

▲도서관사업 자치주에는 공공도서관(주와 현 시립급), 9개소, 기층도서관(단위 사업소 내의 도서관)이 2500여개소가 있다. 1982년에 새로 준공된 연변도서관은 주안의 도서관중심으로 건평이 4400평방미터에 달하고, 30만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매일 400여명이 이용하고 있다. 이 도서관에서는 국내 25개 도서전문분야 및 미국, 일본 등지의 정부간행물과 기타 100여종의 도서를 교환하고 있다.

▲문학 창작 1978년부터 1988년까지 10년간 자치주에서 발표된 문학작품들을 간추려 보면, 우선 소설 및 시 부문에서는 장편과 중편소설이 각각 23편, 단편소설집이 18권, 장편서사시가 5편, 서정시집이 20권 등이고 아동문학작품집 30권, 이론서적과 문학평론집이 15권, 민간문학집 13권, 희극집 3권, 가극집 7권, 무용집 2권 등을 출판했고 해외에서 출판된 작품집도 20여권에 달한다.

■지난 91호(9월20일자) 15쪽의 기사중 '코알라'를 '팬더'로 바로잡습니다.